



[기고] 가을 들녘에서 생각하는 농지은행의 가치

"고령 농업인은 경영이양 통해 안정된 노후, 젊은 농업인은 귀농·귀촌의 첫걸음 내딛을 토대"

영암군민일보 | 기사입력 : 2025/10/28 [15:30:00]



▲ 최은옥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가을빛이 영암 들녘을 물들이면, 논마다 고개 숙인 이삭들이 한 해의 수고를 말없이 전한다. 바람에 흩날리는 벼 냄새 속에는 농부의 땀, 그리고 세월의 인내가 녹아 있다. 하지만 넉넉한 풍경 뒤편 고령화와 일손 부족, 귀촌 인구의 정착 불안,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농기후변화 등 어려운 농촌의 현실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양면 속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은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농지은행은 먹거리의 근본인 "땅"을 지키는 일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사람과 세대를 잇는 일이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을 통해 안정된 노후를, 젊은 농업인에게는 귀농·귀촌의 첫걸음을 내딛을 토대를 마련해준다.

특히 영암은 농지은행사업의 의미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전남의 대표적인 농군(農郡)으로, 오랜 기간 농지를 일궈온 고령농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여 영농 부담을 덜고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고 있으며, 젊은 귀농인들은 그 땅에서 새로운 농업 기회를 찾고 있다. 영암군 덕진면의 한 청년농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한 논에서 친환경 쌀을 재배해 지역 브랜드로 성장시키며 농업의 세대교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내고 있다.

가을 들녘의 노을은 늘 찬란하지만, 그 아래에는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묵묵한 노력들이 깔려 있다. 농지은행사업이 이 같은 노력의 한 중심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다. 영암의 풍요로운 들녘처럼, 우리나라 농촌의 내일도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기대해 본다.